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무재해 꽃 핀다

-동부건설(주)방화동신안재건축 현장-



▲ 박 부 원 소장

계미년 새해를 알리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온 세상이 활기를 띤다. 이번
에 찾은 현장은 새해에 첫 번째로 소개할 현장이라 기대감을 갖고 찾
았다.

오늘 찾은 현장은 들머리부터 심상치 않은 현장임을 짐작케 한다. 건설현
장하면 느껴지는 선입관이 위험하고, 지저분한 곳으로 여겨지는데, 이곳은
모든 생명이 태동하는 봄인 듯 인위적으로 꾸며 놓은 꽃길은 지나가는 사람
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하기에 충분했고, 현장 내부는 활기찬 작업 속에 안
정된 느낌을 준다.

서울시 강서구 강화동에 위치한 “방화동 신안 재건축”(박부원 소장) 현
장으로 2003년 11월 준공이 한창인 이곳은 동부건설에서 시공중에 있다.

2002년 11월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환경모범공사장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우수사업장”으
로 선정된 이 현장은 외형적인 느낌 못지않게 내실 있는 안전활동으로 무재
해를 이루고 있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무재해 이룩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의 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죄악입니다.”라고 안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박부원 소장은 편안함을 추구한다.

주민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현장의 박부원 소장은 편안함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재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현장입구에 설치해 놓은 꽃길이다. 주민과 현장을 출입하는 모든 작업자들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꽃길은 주민들에게까지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현장 주변에 학교와 주택가가 밀접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그중 현장 스스로 학생 등·하교시간의 건널목과 차량출입이 빈번한 곳에 교통안전원을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에 전념하고 있다. 그 결과 부수적이나마 이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시공 선택

이 현장은 기존 5층 아파트가 인접하고 있고, 바로 옆에 15M ø 40PILE을 시공해야 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 곳 지질은 연약지반으로 HIE이나 터파기 장비 투입시 전도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터파기 부위에 20mm의 철판으로 복공판을 설치하여 수직도 유지는 물론 파일을 결속하는 로프의 상태, 결속방법 등을 안전규칙대로 준수하여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시공을 할 수 있었다.

이는 최대한 안전을 고려한 시공법을 택하여 시공한 결과다.

현장 여건에 맞는 반복교육

항상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며,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이 향상되고, 안전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박부원 소장은 말한다.

신규채용자에게는 선임 담당자가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매월 1회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모든 교육은 현장 여건에 맞는 교육교안을 준비하여 교육을 시키는 현장 맞춤형 교육인 것이다.

동절기를 안전하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에 대한 위험요소가 도출되곤 한다. 그러나 이 현장에서는 원천봉쇄라는 단어에 맞게 화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현장내 가설사무실 등에 설치한 전열기구 점검 및 소화기 비치는 물론 현장내 취침 금지, 작업장내 난로 설치 금지, 소화기 비치 및 건물내 불깁통 사용 금지 등을 현장에 계몽 전달된 상태이며, 혹시 발생할 화재를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동절기는 연말연시 등이 있어 들뜬 기분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동부건설에서는 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무재해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막 부착, 현장정리정돈 철저, 기간내 특별안전교육 실시, 근로자 음주관리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재래형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지키기” 운동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중점시행하고 있고, 자율적인 안전조치 실시, 일일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등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끝으로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박부원 소장은 “새해에도 올해 처럼 무재해를 달성하여, 근로자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덕담을 들려준다.

박부원 소장을 비롯해 김병섭 안전과장 또한 새해의 소원은 무재해 준공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마, 지금까지 한 것 처럼 한다면 바라는 무재해 준공은 11월에 나타날 것이며, 이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최종덕기자>

